

## 5장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

모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로 받고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5:2).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관할하는 애굽인 감독과 이스라엘 패장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엄하게 일을 시키라고 명령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 때문에 그들이 고생을 당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5:9)이라고 받아들이게 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도록 하였다.

### 1.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5:1-5)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외교적인 수사(修辭)를 쓰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와와 말씀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선지자가 여호와와 말씀을 전하면서 선언하는 말투다. 외교적인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므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와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였다.

바로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대답하였다. ‘여호와가 누구관대’라는 말은 이어지는 말, 즉 “내가 그 말을 듣고”라는 말로 설명된다. 애굽에서 신적인 왕으로 자처하고 있던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덧붙였는데,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여호와와 말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심으로써 여호와와 이름을 바로에게도 알게 하실 것이다(6:7; 7:5 등).

바로와 강력한 반응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하였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하고, 드리지 않으면 질병이나 칼로 벌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온역이나 칼로 친다는 말은 열 가지 재앙을 암시하는 말이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두 번째 말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하였다. 바로는 그들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는 것을 쉬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의 역사(役事)나 하라!”고 하였다. 이 말을 보면 그 자리에 장로들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참조 3:18). 장로들이 일한 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섰다고 하면서, 가서 할 일이나 하라고 한 것이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한 것이다.

### 2. 거짓과 폭력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바로 (5:6-14)

바로와 자기 앞에 있는 자들을 물리나게 한 다음에 좀 더 강력한 노예 탄압 정책을 사용한다. 많은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민하게 알고 있는 바로는 애굽의 간역자와 이스라엘의 패장을 불러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바로와 탄압 정책은 분열 정책과 함께 간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선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모세와 백성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하면서 더 어렵게 일을 시키고 어려움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5:9). 여호와와 구원 약속을 ‘거짓말’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바로와 명령은 지체없이 시행되었다. 애굽 사람의 간역자들과 히브리 사람의 패장들이 나가서 바로의 말을 전하고 시행하였다(5:6-9). 바로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욱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

“**바로와 말씀에**”(5:10)는 “여호와와 말씀에”(5:1)와 같은 구문이다. “여호와와 말씀에”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인데 이것은 선지자가 말을 시작할 때 하는 표현이다. 바로는 자신의 간역자와 패장들을 자기의 선지자로 삼아서 “**바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였다.

벽돌을 구울 때에 짚을 넣어야 벽돌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짚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바로가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짚을 구하였다. 그러나 짚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였다(5:12).

이스라엘 백성이 짚 대신에 그루터기를 사용하여 벽돌을 구어도 할당된 숫자를 채울 수 없었다. 그런데도 바로의 간역자들은 이스라엘 패장들을 독촉하고 그들을 때리면서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였다. 이스라엘 패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도록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바로의 통치술이 매우 정교하고 피라미드처럼 견고하게 조직되어 있음을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을 애굽 사람의 편에 붙게 만들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식민 정책을 쓴 것이 다(참조. 以夷制夷).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참조. 2:13).

### 3. 이스라엘 패장의 부르짖음과 백성의 분열 (5:15-21)

이스라엘 패장들은 이집트의 간역자들에게 맞은 후에 바로에게 호소하였다. ‘호소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부르짖는다고 했다(5:8).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분은 여호와이지만(2:23; 3:7) 지금은 그들이 바로에게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부르짖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였다.

바로는 패장들이 찾아와서 호소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해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한가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는 ‘시침을 떼고’ 그들이 게으르다는 사실로 ‘덮어씌운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물러나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바로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원망하였다(5:21).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냄새나는 것’이라는 말이다. 칼로 없애려고 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킨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바로의 정책은 잘 시행된 것처럼 보인다.

### 4. 모세와 여호와 (5:22-23)

모세는 패장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어찌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5:22) 하고 물었다. ‘학대’는 ‘악’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어찌 바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느냐 하는 질문이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이 반대하는 현실을 ‘악’으로 표현하였다.

모세는 또한 바로와 백성의 반응을 보고 왜 자신을 보냈느냐 하고 물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는 것은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는 3:14-15에 대한 질문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던 모세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 목상과 실천:

#### 바로의 전략과 이스라엘 패장의 무지

##### 1. 바로의 전략

바로가 거짓말과 폭력을 사용하였다. 폭력적으로 억압하여서 사람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거짓말로 받아들이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아갔다. 어둠의 세력은 매우 교묘하게 일을 이루어 나아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의 전략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바로는 ‘시침 떼기’ 전략을 사용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

둘째는 ‘덮어씌우기’ 전략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면서 그 원인을 모세에게 덮어씌운다. 그러면서 모세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간다.

셋째는 ‘분열시키기’ 전략이다. 바로는 거짓말과 탄압을 사용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분열시킨다. 이스라엘 사람을 패장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적으로 분열시킨다.

넷째, 바로는 ‘자리 차지하기’ 전략을 사용한다. 그는 적을 분열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에게 부르짖으라고 한다.

바로는 이러한 여러 전략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나아오지만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바로를 강박하게 하여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 2. 이스라엘 패장들의 무지

이스라엘 패장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세에게 원망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그들의 말에는 여호와에 대한 무지가 가득 담겨 있다. 여호와께서는 패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고 계신 일에 관해서는 모르고, 오히려 여호와와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이 심판을 당하기를 구하였다. 바로로부터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여호와와 언약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무지한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무지는 몇 가지 사실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몰랐다. 모세는 바로에게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칠 것이라고 했었는데(5:3)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바로’가 칼로 그들을 치는 것을 말하였다(5:21). 여호와께서 칼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바로를 여호와의 위치에 올려놓고서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치심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후에 열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은 여호와와 심판에 관해서도 몰랐다. 여호와와 심판은 바로에게 임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구원의 도구로 택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와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였다.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와 구원의 도구에 관해서 심판이 임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만일 그들의 무지한 소원대로 된다면 그들의 구원은 없어질 것이었다.

셋째, 그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모세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였고,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바로에게 희생을 당한 자였다. 모세가 바로에게 칼을 쥐어 준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들은 자기의 역사를 바르게 보지 못하였다.

넷째, 그들은 모세가 그들 앞에서 행한 이적의 의미를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였다(4:30). 모세가 그들 앞에서 행한 이적은 열 재앙의 전조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뜻을 충분히 몰랐다. 그때에는 믿었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에 뿌리가 없음이 드러났다.

## 3.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도 모르고, 모세와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이적도 몰랐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종도 알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 된다.

## 5장 익힌 문제

1. 1)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 3절)  
 2) 모세와 아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서 바로는 예언하게 대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2. 1)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에 대한 바로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7-8절, 17절)  
 2)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9절)  
 3) 간역자란 패장은 누구의 말로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무엇과 비슷했습니까? (10절)  
 4)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벽돌의 수효가 줄어들자 간역자들은 패장들을 때렸는데 그 패장들은 어느 민족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까? (14절)
3. 1) 바로는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에 만들던 만큼의 벽돌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하다고 이유가 말하였습니까? (17절)  
 2) 바로는 짚을 달라고 호소하는 이스라엘 패장들의 말을 무시하고 벽돌을 전처럼 만들라고 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로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무엇으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원망하고 있습니까? (21절)
4. 1)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어떠한 사상을 말씀 드렸습니까? (22절)  
 2) 모세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23절)